

텔레비전 뉴스 콘텐츠에 나타난 탈북민의 이미지 분석

An Analysis of the Image of North Korean defector on the TV New Content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Jinbong Choi(choi0126@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의 탈북민 관련 보도내용 분석을 통해 탈북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주로 다루고 있는 보도 주제가 무엇인지, 탈북민 관련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뉴스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탈북민을 포함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다른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기보다는 주류사회의 관점에 의해 말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탈북민 |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 뉴스 프레임 | 이미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South Korean TV news programs represent the image of North Korean defector through analyzing South Korean TV news contents portraying North Korean defector. In order to conduct this research, the study analyzes the main subjects of the South Korean TV news contents, the image of characters on the TV news contents, and frames which the TV news contents mainly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TV news programs represent the positive image of South Korean government whereas they criticize North Korean government while representing North Korean defector issues. However, the TV news programs showed no interest in real problems which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experiencing. Furth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very similar to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were analyzing the representation of news media about minority groups including North Korean defectors. Most studies analyzing how news media represent minority groups show that the groups have been identified not by their own opinions and relations but predominant culture and lifestyles in the society, and they are also represented not by their own voice but predominant perspectives of the society.

■ keyword : | North Korean Defector | Television News Program | News Framing | Image |

1. 서론

1950년 첫 귀순자가 나온 이래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수는 지난 2011년 말 2만 명을 넘어선 이후, 약 1년 반 만인 2013년 8월 2만 5560명을 기록하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7천명 까지 증가했다[1].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던 시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4년간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간 입국 탈북민 수가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06년부터 한해 입국자 수가 2000명을 넘게 되고, 2009년에는 한 해 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2,917명으로 최고점에 달했다[2].

2000년대 탈북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들의 모습도 많이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무직 또는 노동자 출신의 성인남성이 단독으로 탈북을 감행하는 현상이 표준적인 탈북민의 모습이었던 반면, 현재는 가족과 함께 탈북한 20~30대 여성 탈북민이 가장 전형적인 탈북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3].

실제로, 탈북민들의 입국현황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바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탈북민의 12%에 불과했던 여성 탈북민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 2006년에는 전체 탈북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러한 탈북민들의 성비 역전 현상은 가족동반 탈북이 대세가 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최근에는 기존의 탈북민들과 달리 어떻게 해서든 가족과 함께 탈북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조사결과도 이러한 현상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지난 2009년까지는 가족동반 탈북이 12% 수준이었지만 2010년에는 4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

그런데, 근래에 들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입국한 한국을 다시 떠나는 이유는 한국사회에 쉽사리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한 국민들이 탈북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거부감도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탈북민들은 일반적으로 남한 국민들에게 동포의식을 기대하고 있지만, 남한 국민들은 탈북민에 대해 동포의식을 느끼기 보다는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013년에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남한 사람들은 42%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해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탈북민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시해 온 이 조사에서 남한 국민들이 탈북민에게서 느끼는 호감비율은 2007년 36%에서 2010년에 42.4%로 높아졌다가 2013년에 다시 39.5%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 되었다[6].

그런데, 이러한 남한 국민들의 탈북민들에 대한 의식과는 다르게 탈북민들은 남한 국민들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탈북민 133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87.3%가 남한 국민들에 대해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들이 남한 국민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감도는 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1년 91.3%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그렇다면 이처럼 남한 국민들과 탈북민들이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호감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탈북민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남한 국민들에게 탈북민들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주변에 탈북민들이 없어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언론에 비쳐지는 탈북민들의 이미지를 통해 탈북민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경우, 언론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해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8]. 즉, 탈북민 관련 이슈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가 해당 이슈에 대한 틀 짓기(프레임) 과정을 통해 탈북자들의 이미지

를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디어 프레이밍(Media Framing) 이론에 따르면,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언론매체가 사회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는 사회현실을 재구성한다고 주장한다[9-11]. 버거와 루크만(Berger & Luckmann)은 언론이 생산한 뉴스가 일정한 인식 틀에 의해 생산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12], 갠슨과 모딜리아니(Gamson & Modigliani)는 언론이 사회적 이슈와 사건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현실을 재구성한다고 주장했다[13]. 기틀린(Gitlin)은 언론이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체적인 해석과 특정한 이미지의 선별적 선택, 그리고 그 선택된 이미지를 강조, 또는 특정 이미지는 배제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들이 생산한 뉴스 프레임을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전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4].

이러한 미디어 프레이밍 이론에 따르면, 탈북민들에 대한 남한 언론의 보도태도는 결국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탈북민들에 대한 특정 이미지와 선입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한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어떤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북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주로 다루고 있는 보도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탈북민 관련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뉴스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II. 기존 연구 분석

피스크(Fiske)는 인간이 원래 인지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단순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15]. 이는 탈북민에 대한 뉴스미디어의 재현이 탈북민과의 직접적인 접촉 경험이 없는 시청자들에게 편향되고 단순화된 이미지를 심어줄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국내의 탈북민 인구비율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탈북민 유입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탈북민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매체에서 제공하는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탈북민을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언론이 보여주는 탈북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일반인들이 탈북민들에 대해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시선은 탈북민들의 사회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17]. 따라서 뉴스미디어는 남한 사회에 탈북민들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18][19]. 이 때문에 뉴스미디어의 탈북민 보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탈북민 보도에 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다.

탈북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곽정래와 이준웅의 연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에 탈북자 문제를 뉴스미디어가 어떤 시각에서 다루고, 해석하고, 평가했는지에 대해 뉴스프레임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했다[20]. 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1998~2002)와 노무현 정부(2003~2007) 시기 북한의 식량위기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북한지역을 이탈한 탈북민 문제에 대해 뉴스미디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뉴스프레임을 만들어 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인 1998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10년간으로 정했다. 분석대상 언론사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5개 전국일간지를 선택하였고, 분석기간 중 이 5개 신문사에 게재된 사설 중에서 탈북민 문제를 다룬 사설들만을 골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분석대상 사설을 수집한 결과, 총 278건이 수집되었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20].

분석결과, 남한의 뉴스미디어는 전반적으로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주변국 평가와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문제 처리와 대응에 대한 분석대상 언론의 전체적인 논조 역시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나아가, 언론사 사설에 나타난 탈북자 문제의 논의구성방식 역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제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현상이나 상황의 기술 또는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특히,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보도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인권보장, 상황극속, 체제개선, 사회통합 등의 프레임이 주요 뉴스프레임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20]. 한편, 보수와 진보 언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수신문은 탈북민의 인권과 생존권과 같은 보편적 인도주의에 따라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반면, 진보신문은 북핵 위기와 남북경협 등 남북 관계전반을 고려해 탈북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20].

한편, 뉴스 프레임에 대한 연구는 탈북민 관련 뉴스 분석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뉴스 프레임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이슈나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또는 의도되지 않더라도 특정 관점을 담고 있는 현실의 재구성 과정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재현체계를 가시화하여 효과적으로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회의 도구이며, 미디어는 현상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형식을 제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21]. 그리고 언론의 이런 힘은 특히 사회적 소수자를 다룰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한 사회의 소수자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적으로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고, 타자의 위치로 주변화 되어 주류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되는 모습으로 매스미디어에 의해 재현된다[20].

탈북민 역시 매스미디어의 재현과정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소수자 집단의 모습으로 재현되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의해 규정지어지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기보다는 주류사회의 관점에 의해 말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20][22-25]. 문제는 이러한 대중 매체의 소수집단 보도 방식이 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을 실제 현실로 공고화 시키고 권력자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며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데 기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16].

이러한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 지금까지 우리사회 소수그룹에 대한 뉴스미디어의 보도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탈북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대표적인 소수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뉴스미디어의 보도태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국내 이주민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의 초기 이주민관련 신문뉴스 보도 행태를 연구한 양정혜의 연구는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과 관련된 보도가 근본적인 원인 파악보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주민 관련 기사가 이주민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이 있어서 이주민의 견해가 배제된 채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서도 타자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26].

정의철과 이창호의 뉴스 프레임 연구는 한국계 미국인 풋볼선수인 하인즈 워드의 사례를 보수와 진보언론 그리고 온라인 뉴스매체의 혼혈인들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23].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언론들은 관심을 끝마친 이야기 위주로 뉴스를 프레이밍 하는 스펙터클 중심의 보도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펙터클 보도는 비본질적인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을 강조하여 보도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이슈화 하지 못하며 “우리와 다른 도움과 연민의 대상인 ‘타인’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부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 매체들과 달리 인터넷 매체는 비교적 인권보호와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혼혈인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영길의 연구는 이주민 보도에 있어서 언론사 간 보도 경향에 차이를 발견하였다. 진보 신문사인 한겨레 신문은 온정주의적 프레임으로 이주민들에 대한 이슈를 보도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실천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 언론의 경우 진보 언론에 비해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27]. 하지만 그는 진보와

보수 두 신문 모두에서 이주민의 타자성을 강조하는 국가민족 프레임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사들이 각각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다양한 형식(프레임)으로 이주민에 대해 보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주민을 타자화 한다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주민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이미지는 원주민들의 입장과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주민을 원주민들과 다른 타자로 규정하고,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이미지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젠더적 시각에서 진보와 보수 언론의 차이를 질적으로 분석한 홍지아의 연구는 진보언론은 성공한 이주여성의 적응 사례로 어머니 며느리, 아내로서의 한정된 성역할이 아닌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주변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보수언론과 차별화된다고 결론지었다[28].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된 홍지아의 연구는 기사의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담론 분석 대상을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함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주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 양상을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는 연구였다.

III. 연구문제

앞서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구 방법과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한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도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탈북민 관련 뉴스가 주로 보도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수그룹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재현내용에 대한 콘텐츠 분석은 뉴스의 주제와 재현대상이 되는 소수그룹을 뉴스 미디어가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도 탈북민들에 대해 남한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보도 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떠한 이미지와 특성으로 재현되고 있는가?

나아가, 소수그룹에 대한 뉴스 미디어의 재현 내용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뉴스 미디어가 소수그룹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뉴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뉴스 프레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3>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주로 사용하는 뉴스 프레임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방송사별 탈북민 관련 뉴스를 분석하여 각 방송사가 탈북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탈북민의 이미지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뉴스 프레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이 탈북민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남한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와 뉴스전문 케이블 채널인 YTN, 그리고 JTBC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종편 4개사 중에 JTBC를 분석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다른 종편 방송사와 달리 한국기자협회에서 언론인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언론사의 영향력 및 신뢰도 조사에서 JTBC가 가장 신뢰도와 유용성이 높은 방송사¹⁾로 선정되어 언론인들이 JTBC를 신뢰도가 높은 방송사로 선정해 뉴스의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경우, 최근 들어 신뢰도 및 영향력이 떨어지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²⁾로 꼽히는 등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YTN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24시간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 다른 언론사의 편집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인터넷에서 많이 이용되는 뉴스채널이기 때문이다^[29].

분석대상은 각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 까지 4년 동안 방송된 정규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각 방송사 사이트에서 ‘탈북민’과 ‘새터민’이라는 단어를 검색어로 입력해 검색된 뉴스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뉴스기사 중에서 단순한 사건·사고, 행사 소식, 단순 인물 소개, 연예인·스포츠 스타 동정 등은 제외시켰다. 또한 같은 화면과 내용의 뉴스라면 다른 시간대 뉴스 프로그램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사만 채택했다.

2. 분석방법

분석 방법은 먼저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대상 방송사의 탈북민 관련 뉴스 기사들이 어떤 뉴스 주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등장인물의 성(젠더), 나이, 출신국가, 의상, 기타 특성 등을 필수로 적고, 혹시 모자이크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이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대상

기사의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뉴스 프레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뉴스 프레임 분석을 통해 조사 하였다.

표 1.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 분석 항목

구분	분석 항목
등장인물의 특성 분석	성 (젠더)
	나이
	출신국가
	의상 (갓춰 입은 정장의 정도)
	기타 특성 (모자이크 처리 등)

분석은 정확한 분석유목의 설정과 분석을 위해 두 명의 코더가 분석대상 뉴스를 함께 시청하면서 토의를 거쳐 분석유목과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코더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분석방법에 대한 논의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홀스티 지수를 활용해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할 결과, 코더 간 신뢰도 수치가 .88 이상으로 나타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V. 연구결과

1. 탈북민 관련 보도기사의 주제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년 동안 분석대상 5개 방송사 정규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탈북민 관련 뉴스 보도건수는 총 72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 KBS가 27건을 보도해 가장 많이 보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JTBC가 15건의 탈북민 관련 기사를 보도해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YTN이 11건, SBS가 10건, 그리고 MBC가 9건으로 탈북민 관련 기사를 가장 적게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표 2].

분석대상 5개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보도과정에서 다루었던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주제는 ‘정치’ 관련 주제였다.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가 ‘정치’관련 주제였다는 것은 탈북

1) 2014년 시사IN 여론조사 중 ‘신뢰하는 뉴스프로그램’ 항목에서 JTBC <NEWS9>은 KBS <뉴스9>와 함께 13.9%로 공동 1위에 올랐다. 같은 해 시사저널의 ‘영향력 있는 언론인’ 조사에서 손석희는 60.9% 지지율을 얻었다.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23일자), ‘손석희와 JTBC 기자들의 18,850분’ 참조)

2) 기자회견보 (2014년 12월 17일자), ‘미디어 신뢰성·유용성 JTBC, 긍정성 YTN 1위’

표 2. 방송사별 탈북민 관련 보도 건수

언론사	보도건수	퍼센트(%)
KBS	27	37.5
MBC	9	12.5
SBS	10	13.9
YTN	11	15.3
JTBC	15	20.8
합계	72	100

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주로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탈북민들과 관련된 보도가 주로 탈북민들과 관련된 정치적인 행사가 열리거나 주요 정치인들이 탈북민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 등이 있을 경우에 주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사들이 두 번째로 빈번하게 다루고 있는 탈북민 관련 보도의 주제는 남한 정부의 탈북민 관련 정책과 관련된 주제였다. 두 번째로 빈번하게 보도되는 주제인 '탈북민 정책' 관련 주제도 탈북민과 관련해 가장 빈번하게 보도되는 주제인 '정치'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나 국회 등 정치권에서 탈북민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 방송사들은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철저히 자국민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탈북민 관련 정책이나 정치 관련 주제의 보도가 주로 자국민들과 남한사회에 탈북민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

표 3. 방송사별 탈북민 관련 보도 주제

구분	KBS	MBC	SBS	YTN	JTBC	합계
채용/근로	2	1	1	0	0	4
교육	2	0	0	1	0	3
탈북민 정책	4	1	4	3	1	13
행사	1	0	0	0	0	1
탈북과정	2	0	0	1	2	5
북한사회	1	1	0	0	0	2
북한인권	3	0	0	0	0	3
정치	8	4	3	4	4	23
국제사회	2	1	0	0	3	6
한국생활	1	1	1	2	2	7
범죄	1	0	1	0	1	3
경제	0	0	0	0	2	2

사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나 탈북민들의 남한생활 적응의 어려움, 그리고 탈북민들의 교육문제 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2.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출신국가별로 구분한 결과, 한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 40회 출연하여 가장 많은 출연빈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탈북민의 출연빈도가 24회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처럼 한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 탈북민들 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출연빈도를 보이는 현상은 탈북민 관련 방송 보도의 내용이 탈북민 위주의 보도를 하기 보다는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나 탈북민들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나 정책적 이슈를 탈북민들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도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분석한 내용을 방송사들이 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4].

표 4.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출신국가별 출연빈도

출신국가	출연 횟수	퍼센트 (%)
한국	40	56.8
탈북민	24	35.3
중국	1	1.5
일본	1	1.5
독일	1	1.5
프랑스	1	1.5
합계	68	100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출신국가별 직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탈북민 관련 뉴스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의 직업은 전문직 종사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인(8명)과 공무원(8명)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의 직업 역시 전문직(4

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3명)과 학생(3명)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 외 나라들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등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한 중국인의 직업은 서비스업 종사자였다.

한편,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옷차림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은 정장 차림으로 뉴스에 등장한 인물이 평상복 차림으로 등장한 인물보다 더 많이 등장한 반면, 탈북민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뉴스에 등장한 사례가 정장 차림으로 뉴스에 등장한 사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민들이 정장 차림으로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한 경우는 전체 24회 중 4회에 불과했고, 작업복 차림으로 뉴스에 등장한 탈북민은 2회였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결국,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정치인, 공무원들이 주로 정장 차림으로 뉴스에 등장한 반면, 탈북민들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서비스업 종사자, 그리고 학생들이 평상복 차림으로 뉴스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3.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보도의 뉴스 프레임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주로 사용된 뉴스 프레임은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임,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프레임, 탈북민들의 문제를 다룬 프레임,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임이 주로 사용 되었다.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뉴스 프레임에는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탈북민 정책, 정부의 탈북민 보호

노력, 탈북민 보호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같은 보도 프레임들이 활용 되었다.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프레임에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정권 압박, 그리고 탈북민 강제 복송과 같은 뉴스 프레임들이 주로 사용 되었다.

한편, 탈북민들의 문제를 다룬 프레임에는 탈북민들의 탈북과정과 정착과정의 어려움과 탈북민들의 피해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활용되었고,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프레임에는 범죄 연루와 같이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뉴스 프레임이 주로 사용되었다[표 5].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보도의 뉴스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뉴스 프레임과 북한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뉴스 프레임이 19건과 14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 탈북민 관련 방송 뉴스가 북한정권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부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뉴스 프레임과 달리 탈북민들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뉴스 프레임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탈북민들의 실제적인 문제 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탈북민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뉴스 프레임이 6건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뉴스 프레임은 우리사회에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표 6].

표 5.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의 직업과 옷차림

출신 국가	직업							옷차림			
	전문직	생산직	서비스	학생	정치인	공무원	기타	정장	평상복	작업복	기타
한국	10	0	0	3	8	8	10	27	12	0	1
탈북민	4	1	3	3	0	1	12	4	18	2	0
중국	0	0	1	0	0	0	0	1	0	0	0
일본	1	0	0	0	0	0	0	1	0	0	0
독일	1	0	0	0	0	0	0	1	0	0	0
프랑스	1	0	0	0	0	0	0	1	0	0	0
합계	17	1	4	6	8	9	22	35	30	2	1

표 6.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뉴스 프레임

주요 뉴스 프레임		프레임 사용 횟수	
뉴스 프레임 분류	세부 뉴스 프레임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탈북민 정책	5	19
	정부의 탈북민 보호 노력	6	
	탈북민 보호 프로그램	2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6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	7	14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정권 압박	4	
	탈북민 강제 복송	3	
탈북민들의 문제	탈북과정과 정착과정의 어려움	6	7
	탈북민 피해	1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범죄 연루 등)	6	6
합계		46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주요 텔레비전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4년 동안 방송된 정규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는 탈북민이 중심이 되는 보도 보다는, 정부기관의 탈북민 관련 발표나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한마디로 탈북민 관련 보도에 탈북민은 빠지고, 정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석대상 5개 방송사들의 탈북민 관련 보도의 주요 주제에 대한 분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분석대상 방송사들의 탈북민 관련 보도기사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주제가 ‘정치’와 ‘탈북민 정책’ 이었다. 분석대상 방송사들은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탈북민들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탈북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에 대해 보도하기 보다는, 탈북민 관련 정치행사나 정부나 주요 정치인들이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이나 언급한 내용들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어 탈북민 관련 보도에

서 탈북민은 사라지고 정치적 이슈와 이미지만 남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나아가 방송사들의 탈북민 관련 보도는 철저히 자국민 위주의 보도형태를 띠고 있다. 방송사들이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정치’와 ‘탈북민 정책’을 주요 주제로 사용하면서 탈북민 정책이 자국민과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의 보도가 주를 이루게 되어, 탈북민 관련 보도가 탈북민 보다 한국 국민과 한국사회를 위한 보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탈북민 관련 보도가 북한의 인권 문제나 탈북민들의 한국생활 정착의 문제점, 그리고 탈북민들의 교육문제 등과 같이 탈북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보도는 소수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한국 국민과 한국사회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출신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을 가진 인물의 출연빈도(40회)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탈북민의 출연빈도(24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의 출연빈도의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탈북민 관련 보도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인물이 탈북민들 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출연빈도를 보인다는 것은 탈북민 관련 방송 보도가 탈북민 위주의 보도라기보다는 한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대상 방송사들이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나 탈북민들과 연관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탈북민들의 관점에서 보도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직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탈북민 관련 뉴스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은 전문직 종사자(10명)와 정치인(8명), 그리고 공무원(8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텔레비전 뉴스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의 직업은 전문직(4명), 서비스업(3명), 그리고 학생(3명)이 주를 이루고 있었

다. 이처럼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 주로 한국인 교수나 정치인, 그리고 공무원들을 출연시켜 탈북민 정책에 대해 전문가나 실무자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탈북자 입장에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 입장에서 뉴스를 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주요 뉴스주제와 뉴스 프레임

구분	내용
주요 뉴스주제	정치
	탈북민 정책
주요 뉴스 프레임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북한정권 비판
	탈북민들의 문제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한편, 분석대상 5개 방송사의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에서 주로 사용한 뉴스 프레임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프레임, 북한정권 비판 프레임, 탈북민들의 문제 프레임,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프레임 등 크게 4가지 프레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방송사들의 뉴스 프레임 분석결과, 방송사들은 탈북민 관련 보도를 통해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탈북민 정책에 대한 강조와 정부의 탈북민 보호 노력과 탈북민 보호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나아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정권 압박, 그리고 탈북민 강제 복송과 같은 북한정권을 비판하는 뉴스 프레임을 활용해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석 대상 방송사들은 범죄 연루와 같이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뉴스 프레임을 통해 탈북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분석대상 5개 방송사 탈북민 관련 보도의 뉴스 프레임은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남한 정부에 대

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민 관련 텔레비전 뉴스가 탈북민들의 실제적인 문제 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로 활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언론매체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도할 때는 특정 정치성향을 반영하는 보도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이 연구는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탈북민을 포함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분석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재현 과정에서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기보다는 주류사회의 관점에 의해 말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8][20][22-25]. 이번 탈북민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태도에 대한 연구결과 역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다르지 않은 연구결과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보면, 선행연구들과 같이 매스 미디어가 소수집단에 대해 보도할 때 소수집단의 관점이 아닌 그 사회 주류집단의 관점으로 소수집단의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해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매스 미디어가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그 사회 주류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뉴스 미디어의 소수집단에 대한 이러한 보도 태도가 해당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그 선입견이 사회적 현실로 공고화 되는데 기여하여,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데 있다.

참고 문헌

- [1] <자유아시아방송>, 2015년 3월 2일.
- [2] <내일신문>, 2013년 10월 14일자.
- [3] <자유아시아방송>, 2015년 3월 2일.
- [4] <내일신문>, 2013년 10월 14일자.
- [5] <내일신문>, 2013년 10월 14일자.
- [6] <내일신문>, 2013년 10월 14일자.
- [7] <내일신문>, 2013년 10월 14일자.
- [8] 김희진, 이수민, “신문 보도사진에 나타난 남녀 경제리더의 이미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2호, pp.80-92, 2012.
- [9] H. Gans, *Deciding What's News*, Pantheon, 1979.
- [10] E. J. Epstein, *News From Nowhere*, Random House, 1974.
- [11] G. Tuchman,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Free Press, 1978.
- [12] P. Berger and T.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nchor, 1967.
- [13] W. A. Gamson and A. Modigliani,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ety*, Vol.95, pp.1-37, 1989.
- [14] T. Gitlin, *The Whole World is Watch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15] S. T. Fiske,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McGraw-Hill, 1998.
- [16] D. Croteau and W. Hoynes, Social Inequality and Media Representation, In D. Croteau & W. Hoynes (Eds.), *Media Society: Industries, Images, and Audiences*, Pine Forge Press, 2006.
- [17] P. Golding and G. Murdock, Culture, Communication, and Political Economy, In J.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Edward Arnold, 1991.
- [18] C. Wilson and F. Gutierrez, *Minorities and Media*, Sage Publication, 1985.
- [19] 정연구, 송현주, 윤태일, 심훈,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2호, pp.405-444, 2011.
- [20] 광정래, 이준웅, “김대중·노무현 정부시기 탈북자 문제에 관한 언론의 프레임 유형 연구: <조선일보>·<한겨레> 등 5대 일간지 사설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6호, pp.196-217, 2009.
- [21] M. Schudson, “The Politics of Narrative Form: The Emergence of News Conventions in Print and Television,” *Daedalus*, Vol.111, pp.97-112, 1982.
- [22] 정제민, 김호연, “사회적 약자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 장애인과 장애인공동체 보도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평론: 사회적 약자*, pp.104-146, 2005.
- [23] 정의철, 이창호,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하인스 워드의 성공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5호, pp.84-110, 2007.
- [24] B. Merritt, *Illusive Reflections: African American Women on Prime Time Television*. IN A. Gonzalez, M. Houston, & V. Chen (Eds.), *Our Voice*, Roxbury, 2000.
- [25] A. Mitra, “Voices of The Marginalized on the Internet: Examples from a Website for Women of South Asia,”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4, pp.492-510, 2004.
- [26] 양정혜, “소수 민족 이주여성의 재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관한 뉴스보도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제7권, pp.47-77, 2007.
- [27] 채영길, “미디어의 이주민 타자화 프레임 분석,” *언론학연구*, 제14권, 제2호, pp.205-241, 2010.
- [28] 홍지아, “젠더적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언론의 다문화 담론,” *언론과학연구*, 제10권, 제4호, pp.644-678, 2010.
- [29] 김경희,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제한

이주민의 특성: 뉴스초점 이주민과 주변인물(한국인·이주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3권, 제3호, pp.7-46, 2009.

저 자 소 개

최 진 봉(Jinbong Choi)

중신회원



- 2005년 8월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
- 2008년 9월 ~ 2012년 2월 :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 2012년 3월 ~ 현재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관심분야> : 미디어 정치경제학, 저널리즘, 국제커뮤니케이션